해양오염사범 집중 단속

- 해양경찰청 -

○ 해양경찰청(청장 김종우)에서는 지난봄에 이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해양·수산 유관기관과 바다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해상 및 해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바다정화 캠페인을 벌이고 이어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달 동안 3대 반공익 사범중 하나인 해양오염사범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○ 바다정화 캠페인 기간 동안 해경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, 시·군, 수협, 환경단체 등과 함께 가용 선박과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상·해안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거나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수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며,

○ 해양오염사범 집중단속 기간중 선박과 해양시설, 임해 산업시설 등으로 부터 폐수·폐유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거나 불법 배출하는 행위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거나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, 해양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오염사범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
○ 한편 폐유, 폐수, 폐어구, 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상반기 바다정화 캠페인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7일간 실시하여 연 155개 기관, 276개 단·업체, 선박 518척, 인력 11,074명을 동원하여 해상쓰레기 462톤을 수거·처리하였고, 해양오염방지 계도·홍보를 위한 사진전시회를 전국 53개 주요 항·포구에서 158회 실시하여 100, 886명 관람하였으며,

-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해양오염 집중단속은 선박·해양시설 및 임해 산업시설 등으로부터 폐유·폐수·쓰레기·산업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총 492건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습니다.